



## 어느 날 아침의 착각

박은숙/월간 「좋은엄마」 기자

**나** 에게는 천하 제일 말썽꾼임을 자처하는 두 아들이 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다섯 살이다. 어느새 자랐을까 싶게 훌쩍 자란 아이들, 보고 있노라면 그 말썽에 비명을 지르는 날도 많지만 기특하고 대견하고 통통한 볼에 쪽쪽 입을 맞추주고 싶은 순간이 훨씬 많은 내가 팔볼출 엄마여서 만든 아닐 터이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다섯 살 현호는 그동안 글을 가르쳐본 적이 없는 아이다. 아직 만 네 살이 안된 아이기도 하지만 큰 아이를 키워본 결과 굳이 일찍 한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 그 현호가 작은 낱말 카드를 넘기며 글을 읽고 있지 않은가. 출근 준비로 허둥대며 집안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는 내게 문득 그런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고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어머 세상에! 현호야 이거 읽는 거야?”

현호는 나의 물음에 대꾸도 없이 낱말 카드를 넘긴다.

“라는 라디오의 라, 마는 마이크의 마, 바는 바나나의 바...”

그림과 글자가 어우러진 카드를 보며 읽어 가는데 제법이다. ‘세상에 역시 모유로 자란 애라 머리가 좋은가?’. 제 형하고 다른 것이라곤 모유냐, 분유냐의 차이 뿐인 아이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글을 읽고 있으니 감탄할 수밖에.

“아는 아버지의 아, 아는 야구공의 야, 어는 어머니의 어...”

그림이 아니라 글자를 알고 있음에 분명하다는 나의 심증은 굳어갔다. ‘어는 어머니의 어’ 라지 않는가, ‘엄마의 엄’ 이 아니고,

아이들의 뇌는 태어나서 만3세까지 고른 발달을 보이다가 3~6세까지는 사고와 인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가 활발하게 발달한다. 이후 뇌는 앞에서 뒤쪽 부위로 점차 발달하게 되고 특히 언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만6세가 지나서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뇌 발달 이론에 맞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 요즘 교육방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린 교육’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언어교육을 시키는 목적을 가만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아이가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함인가? 그렇다면 왜 책을 읽고 고자 하는가. 아이가 책 속의 다른 세상을 만나고, 좀 더 다양한 자극을 받고, 또한 풍부한 감성을 키우게 하려는 것이다. 책은 엄마, 아빠가 읽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유아기에는 뇌 발달에 앞서가는 글자·수 교육 보다는 나중에 습득하려면 훨씬 힘든 기본 예절과 인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아이를 기르고 『좋은엄마』라는 육아잡지에 기자로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견지하던 노선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다섯 살바기 아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글자 몇 개를 읽는다고 이렇게 입이 헤벌쭙 벌어 질 수 있다.

뭘, 잘 하는 건 잘 하는 것이고 엄마로서 아들놈 잘 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시 내 아들... 그리고 넘어가는 카드는 ‘유 유모차의 유’ 였다. 현대 이 것이 어인 날벼락인가. 현호는 예의 그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었다.

“구는 구루마의 구!” 1212012